금주의 법구-〈법구경〉
모든 재앙은 입에서 나온다.
그렇기에 함부로 입을 놀리거나
듣기 싫어 하는 말을 하지 말라.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368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5년 음력 11월 12일) 2021년 12월 15일 수요일

민주당표 정부 예산안 '불교 홀대' 비판 직면

국회, 12월 3일 여당 단독상정 예산안 확정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더불어민주당의 단독상정으로 12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두고 '전통문화 홀대' 논란이 일고 있다. 추가 반영됐던 전통사찰과 문화재의 긴급보수 및 보존관리를 위한 예산증액안이 최종적으로 삭제 혹은 대폭 삭감된데 따른 것이다. 특히 올해 수차례 반복된 종교편향과 '사찰 문화재관람료' 폄훼 발언 등으로 불교계 공분이 채 식지 않은 상황에서, 전통문화 보존·전승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 요청까지 사실상 묵살됐다는 점에서 논란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국회는 12월 3일 본회의에서 607조 규모의 내년도 수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예산안은 '슈퍼예산' 으로 지칭될 만큼 대규모였지만, 이 가운데 전통문화 보존·전승을 위한 증액요청은 사실상 묵살됐다. 문화재청이 제출한 '문화재 보존관리 긴급지원 예산증액안' 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출한 '전통사찰 보수정비를 위한 예산증액안' 은 일부만 반영된 것으로 확

전통사찰·문화재 보존위한
예산 증액요청 사실상 묵살
"코로나 이후 사찰 피해에도
보존관리 예산 제자리걸음"

인됐다. 또 그동안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20%로 책정됐던 전통사찰의 보수정비 자부담율도 애초 논의됐던 10%가 아닌 5% 경감에 그쳤다.

애초 예산증액안은 전통문화 보존전승을 위해 조계종이 소관부처와 국회에 요청해 반영된 결과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각 사찰의 재정상황이 악화되면서 사찰이 보유한 문화재와 전통사찰의 유지관리에 대한 어려움이 커졌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인 셈이다.

총무원은 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업에서 그동안 법적 근거없이 20%로 책정됐던 자부담비율의 10% 경감을 포함해 예산총액의 82억 5000만원 증액을 요청했으며, 문화재 보존관리 긴급지원 사업에서 113억 2800여만원 증액을 신청했다. 이는 문화재청과 문화체육관광부 등 소관부처를 통해 예산안에 반영됐고 국회 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정됐다.

본지가 정부 제출 예산안과 소관부처 제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비롯한 국회 상임위 심사 보고서 등을 검토한 결과, 소관부처 및 문화재청과 문화체육관광부는 올 9월 3일 조계종의 예산 증액 요청을 반영한 예산안을 각각 제출했다. 이는 11월 1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이어 예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각각 통과해 원안대로 의결됐다.

특히 예결산특위는 대체토론 결과 "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업과 관련해 전통사찰 개보수에 그치지 말고 문화재 보존관리 측면에서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예산 지원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요지를 도출했다. 이 과정에서 한 의원은 질의를 통해 "시급한 보수정비가 요구되는 전통사찰이 매년 증가하는 상황"이라며 예산 규모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처럼 소관위 심사에서 증액취지에 대한 공감과 동의를 토대로 예산증액안이 상정됐지만, 결과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최종 수정예산안에는 사실상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 문화재 보존관리 긴급지원 예산의 증액분은 아예 삭제됐으며 전통사찰 보수정비 예산은 19억여원 증액에 그쳤다. 자부담비율 경감요청도 5%만 반영됐다. 다만 문체부가 조계종 총무원이 요청한 증액을 일부 삭감한 대신 개별예산으로 제출된 17개 전통사찰에 대한 보수정비 예산은 변동없이 통과했다.

이런 가운데 문화재청이 관할한 문화재 보존관리 예산 증액안은 전액 삭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코로나19로 문화재 보유사찰들이 극심한 타격을 입은 상황에서 문화재를 온전하게 유지보존하기 위한 필수인력에 대한 지원도 포함돼 있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가 나온다. 불교계는 코로나로 인한 피해에도 문화재와 전통사찰 보존관리에 대한 부담만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불편한 시각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국가 지정 문화재와 전통사찰 대부분을 소유하고 보존관리해 온 조계종을 상대로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혀 왔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청래 의원의 '문화재 관람료' 폄훼 발언 이후, 불교계를 향해 공식적으로 사과 입장을 표명하고 "전통문화 보존관리 및 전승을 위한 불교계의 역할에 감사하다"며 "예산을 통해 국가 차원에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조계종 총무원 관계자는 "문화재와 전통사찰 유지보수 및 관리를 위한 필수적인 예산 증액을 요청했고 국회 상임위에서도 증액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한 사안"이라며 "법적 근거 없이 책정됐던 전통사찰 보수시 자부담비율 20%를 10%로 낮춰달라는 요청 역시 근본적인 검토조차 없이 '던져주기식' 으로 5% 감경하는 등 행태로 전통문화 홀대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 조계사 '2022 소원탑' 설치 서울 조계사(주지 지현)가 12월 6일 경내에 '2022 소원탑' 을 설치했다. 조계사를 찾는 누구나, 내년의 발원을 소원지에 적어 탑 주위에 걸 수 있도록 했다. 지현 스님은 "코로나19로 모두가 힘겨운 시간을 보냈던 만큼 서로가 아끼고 다독이는 마음이 모일 때 여러분의 소원 또한 부처님의 가피와 보살핌으로 모두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사진제공=조계사

20돌 맞는 템플스테이 '글로벌 브랜드' 추진

문화사업단, 템플스테이 운영자 연수서 밝혀

20주년 기념사업 기조 발표해
기념식·나눔 이벤트 등 예정
내년 11월 리뉴얼 브랜드 선포
'Again 2002' 해외 사업 추진

내년에 운영 20주년을 맞는 템플스테이가 글로벌 브랜드로 나아가기 위한 다양한 기념 사업을 추진한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원경, 이하 문화사업단)은 12월 8일부터 10일까지 제주 일원에서 열린 '2021년 템플스테이 운영자 연수' 에서 20주년 기념사업 발표회를 개최했다.

8일 진행된 설명회에서 김필제 20주년 기념사업 특별기획위원은 약 1시간여 동안 20주년 기념사업의 추진방향과 기조에 대해 발표했다.

김 기획위원에 따르면 내년 20주년 사업은 대내(정부 및 사찰 등 주요관계자)·국민·대외(외국인 및 해외 참가자)로 대상을 나눠 진행된다.

대내 사업은 '성과와 의미 조명·미래 가치 제시' 를 추진 방향으로 삼았다. 주요사업으로는 △20주년 기념식(2월) △20주년 다큐 및 홍보영상 제작(8월) △20주년 기념 국회세미나(11월) △20주년 사진전(11월) 등이 추진되며, 내년 11월 중에는 리뉴얼된 템플스테이 브랜드가 선포될 예정이다.

김 기획위원은 "기념사업을 통해 템플스테이를 비롯한 불교문화체험 사업의 양적 질적 가치를 조명할 것"이라면서 "나아가 불교적 미래 가치를 표방한 경영 방침 및 템플스테이·사찰음식 운영 방안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일상회복, 사회통합을 위한 공양' 을 추진방향으로 삼은 국민 대상 사업은 20년간 많은 사랑을 준 국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행사로 채워진다. 추진 예정인 '국민 감사 이벤트-같이나눔 템플스테이' 는 운영사찰을 공모해 진행된다. 공모는 별도로 제작된 20주년 템플스테이를 통해 이뤄지며, 응모에 선정된 운영사찰은 최소 1개 이상의 특별템플스테이를 운영해야 한다. 문화사업단은 공모에 응한 사찰 중 사찰음식 홍보행사 및 특화사찰 행사를 기획한 곳은 이벤트와 연계해 푸짐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몇 가지 예시 프로그램도 제안됐다. 2002년 태어난 템플스테이 동갑내기 청년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동갑내기 템플생파 주간' 은 2002명에게 선착순 무료 혜택을 제공하는 이벤트다. '휴가에 진심, 직장인 템플스테이' 는 30대 직장인을 대상으로 추진되며, 외부와 접속을 차단에 오롯이 쉼에 집중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부모님과 함께 라떼 템플스테이' 는 20~30대 자녀와 50~60대 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템플스테이이며, 비건인·사찰음식 관심층을 대상으로 한 '비우면 채워지는 사찰음식템플스테이' 도 추진될 예정이다.

김 기획위원은 " '같이 나눔 템플스테이' 는 20년간 템플스테이를 사랑해준 국민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행사로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소중해진 사람과의 관계를 템플스테이가 이어주는 매개가 되겠다는 포부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대외 사업으로는 'Again2002' 이벤트를 통한 주한외교사절 템플스테이, 외신기자 초청 팸투어 등이 진행된다. 이를 통해 문화사업단은 템플스테이를 글로벌 브랜드로 도약시킬 발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김 기획위원은 "참가 호응도가 높은 구미 대상 홍보와 마케팅을 유지하며 사찰음식과 문화콘텐츠를 주축으로 새로운 해외지역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화사업단은 20주년 기념사업의 성패는 운영사찰들의 동참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참여를 독려했다. 김 기획위원은 "20주년 기념사업의 성공은 운영 사찰 주지 스님과 지도법사 스님, 실무자에게 달려 있다. 많은 관심과 동참을 바란다"고 밝혔다.

연수 입재식에서 문화사업단장 원경 스님은 20주년 기념사업에 참여하는 운영사찰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원경 스님은 "내년 20주년을 맞아 추진되는 문화사업단의 사업들을 보면 일선 운영사찰에서 참여·응용할 사업들이 적지 않다"면서 "새로운 사업에 도전하겠다는 운영사찰들이 있다면 내년에는 일하는 재미가 날 것이다. 예산 지원의 폭도 대폭 넓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화사업단의 20주년 사업을 시기적으로 잘 살펴서 함께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독려했다. 〈관련 기사 3면〉

제주=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백만원력결집불사



사부대중의 원력으로 함께 합니다.

모연동참안내

백만원력결집불사 검색
NAVER 대한불교조계종 검색

후원계좌 예금주 : 재)아름다운동행(백만원력결집)
농 협 301-0248-0882-41
국민은행 008601-04-152458
우 체 국 010579-01-005480

ARS 060-700-0012(한통화 3,000원)

동참문의 정기후원
백만원력 결집불사 02-6273-0108~9

대한불교조계종